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러한 음운 변동 유형들 중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 ① 끊어[끄너] ② 흙하고[흐카고]
③ 밤꽃[밤눈] ④ 술하다[수타다]

2. 다음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옳바르지 않은 것은?

<보기>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적 합성어,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 ① 타고나다 - 통사적 합성어
② 붓돔 - 비통사적 합성어
③ 돌보다 - 통사적 합성어
④ 높푸르다 - 비통사적 합성어

3. 다음 중 ㉠과 ㉡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 그는 하는 시험마다 백이면 백 모두 승리했다.
㉡ 열 사람이 백 마디의 말을 한다.
② ㉠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
㉡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 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③ ㉠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떠나기로 했다.
④ ㉠ 높이가 100미터인 바위산에 올라갔다.
㉡ 나무가 벌써 어른의 키 높이 정도로 자랐다.

4. 다음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들¹ 「의존명사」(명사 뒤에 쓰여)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 들⁴ 「조사」(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⁸ 「접사」(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① 책상 위에 놓인 공책, 신문, 지갑 ㉠들을 가방에 넣었다.
② 거기 ㉡앉아서들 이야기하세요.
③ ㉢다들 떠나갔구나.
④ 나는 “㉣어서들 오세요.”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5. 다음 중 원칙대로 띄어쓰기를 할 때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어려운√일√하는√사람을√보면√존경심마저√생긴다.
② 그√사람이√떠난√지√사를√만에√돌아왔다.
③ 저√큰√집√한√채√살√때까지√열심히√돈을√벌었다.
④ 네√말을√들으니√그럴√법√하다는√생각이√든다.

6. 다음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바른 것은?

- ① accessory: 악세사리 - juice: 쥬스
② window: 윈도 - concept: 콘셉트
③ robot: 로봇 - ad lib: 애드립
④ symposium: 심포지움 - flash: 플래시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고개 숙인 벼 이삭으로 누레진 들판.
② 만들새를 보니, 정성을 들인 것이 분명하다.
③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이를 닦았다.
④ 그이가 늦지나 않을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8. 다음 중 두 번 이상 안긴 절이 있는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철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기가 부족하다.
② 누구나 자기 현실을 불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③ 누구도 그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후보자임을 의심치 않았다.
④ 그는 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9. 다음 중 설명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동창회에서’는 주어이지만,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의 ‘동창회에서’는 부사어이다.
② ‘물이 얼음이 되었다.’와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얼음이’는 보어이고 ‘얼음으로’는 부사어이다.
③ ‘민주는 엄마와 진학 문제를 의논했다.’의 ‘와’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엄마와 민주는 민하를 기다렸다.’의 ‘와’는 접속 조사이다.
④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의 ‘하고’와 ‘너는 성적이 누구하고 같으냐?’의 ‘하고’는 모두 부사격 조사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0.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을 수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좋겠다.
→ 내가 오직 바라는 일은 네가 잘됐으면 하는 것이다.
- ② 형사들은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 형사들은 그를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문초하기 시작했다.
- ③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
- ④ 그는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다.

11. 다음 작품은 김삿갓이 주인에게 대접을 받고서 쓴 시이다. 감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다리 소반에 죽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네
주인장,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나는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다오.

- ① 가난한데도 죽이나마 대접하려는 주인의 인정이 따스하다.
- ② 감사를 전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 ③ 하늘과 떠도는 구름은 주인의 유유자적한 삶을 의미한다.
- ④ 나그네의 정서에서 자조나 한탄은 보이지 않는다.

12. 다음 글에 나타난 매클루언의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매체[media]’란 어떤 작용을 다른 곳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나 수단이다. 이에 따르면 젓가락이 부딪치는 소리를 우리 귀에 전달하는 공기, 또 음성의 정체를 분석하도록 뇌에 전달하는 귀도 일종의 매체이다. 곧 매체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매체학자인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1911~1980)은 매체에 대한 이러한 기존 인식이 매체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매체가 우리의 감각적 활동이나 사고 작용을 유발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연설이나 편지처럼 직접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옷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런 매체에 의해 인간의 사고가 결정되고, 인식 체계가 바뀌며,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다.

- ① 언어적 기호(記號)와 비언어적 기호(記號) 둘 다 매체다.
- ②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
- ③ 매체는 매개체이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다.
- ④ 의미 전달에 활용된다면 기차도 매체라 할 수 있다.

13.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外*乙抱遣去如 (*‘外’은 ‘卯’로 판독하는 경우도 있음.)

- ① 『균여전(均如傳)』에 실려 있다.
- ② 민요적 성격이 강하다.
- ③ 첫 번째 구의 밑줄 친 ‘隱’은 음독(音讀)한다.
- ④ 형식상 <헌화가>와 같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버렸다. 발이라도 빠졌는지 백화는 꿈쩍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달이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중략)
“무겁죠?”
영달이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쁜 느낌이었다. (중략)
“어깨가 참 넓으네요. 한 세 사람쯤 업겠어.”
“땀이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구.”
그들은 일곱 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편에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중략)
영달이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 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중략)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 씨도 영달이에게 권유했다. 영달이는 흠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대합실에서 정 씨가 영달이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천 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중략) 정 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지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달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내다보았다. 백화가 뭔가 쭈 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중략)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 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리 뒤편을 탈 텐데……. 잘 가슈.” 영달 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중략) “정말, 잊어버리지……. 앓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14.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였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달은 백화와의 동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② 정 씨 본인은 뜨내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백화는 영달의 마음을 가능하기 힘들어 불안해 한다.
- ④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이 있다.

15. 문학 기법 관련 서술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관찰자 시점의 성격을 지녔다.
- ② 말하기(telling) 기법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백화의 복잡한 심정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 ④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다.

16. 다음 글에서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퓨전 바람은 역사 속의 문화 융합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 에는 () 식의 변화와 통합이 주를 이뤘다. 즉 남쪽의 굴 을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식이다. 북도 중심의 서양식 아 파트가 이 땅에 와서 거실 중심의 구조로 바뀐 것은 마당을 중심 으로 방이 빙 둘러서는 한옥 형태에 적응한 결과다. 한국의 갈비 가 바비큐 문화에 ‘적응’하여 엘에이(LA) 갈비로 거듭난 것도 ‘굴 이 탕자가 되는 식’의 융합 사례들이다. 생활의 필요 때문에 이질 적인 문화 요소들이 자연스레 합치게 되었다는 뜻이다.

- ① 國粹主義 ② 衛正斥邪 ③ 嘗糞之徒 ④ 橘化爲枳

17. 다음 글의 밑줄 친 ‘자(恣)’와 같은 한자를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라고 불리는 동물을 영국인은 ‘dog[도그]’라고 부르고, 독일인은 ‘hund[훈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의미 가 언어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듯 언 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는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 (恣意性)이라고 한다.

- ① 지자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줄임말이다.
- ② 그의 방자한 태도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 ③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시오.
- ④ 지리산은 웅장한 자태를 뽐냈다.

18. 다음 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라고 하였다. 시뮬라 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는데, 실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 의 사실성, 즉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 이때 실재가 파생 실 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한다. ‘시뮬라크르’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플라톤인데, ‘시뮬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플라톤은 현실은 세계의 원형인 이데아의 복제물이고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 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플라톤의 시각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현대에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① 시뮬라시옹의 결과물이 시뮬라크르이다.
- ② 시뮬라크르, 파생 실재, 하이퍼리얼리티는 같은 의미로 간주해 도 무방하다.
- ③ 보드리야르는 사진을 보고 이를 재현한 그림의 가치를 인정했 다.
- ④ 플라톤은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했 다.

19. 다음 글의 독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물을 돈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 겼다. 예로부터 물이 매우 귀했던 제주도에서는 잔칫집에 초대받 아 갈 때 선물로 물을 가득 담은 항아리를 가져가곤 했다. 물이 곧 돈이나 과일 같은 값진 선물이었던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비가 올 때 나무를 타고 새끼줄을 따라 흘러들어 온 빗물을 항아리에 모은 후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여름철에는 그 항아리 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개구리를 거기에 넣어 기 르는 집도 있었다고 한다.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나) 느린 존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는 듯하다.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낙오된다. 그러나 단기 승부의 순발력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급속하게 추진했던 고속철도가 예정보다 2년이나 늦게 개통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경쟁력은 오히려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내실을 다지는 깊이에서 나온다.

- ① (가)와 (나) 모두 우선 사실적 독해를 기본으로 한다.
- ② (가)의 두 문단은 '주지-부연'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
- ③ (가)는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 ④ (나)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기에 공감은 피해야 한다.

2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남선, 이병기, 이은상은 시조 부흥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② <춘향전>, <심청전>, <구운몽>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 ③ 이상의 <날개>는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 소설이다.
- ④ <호질>, <양반전>은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①	③	④	③	④	②	③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①	②	④	②	④	④	②

01 ① 현대문법-음운론: 음운의 변동

①의 '꿇어'는 [꾼어(≡탈락)→끄너(연음)]로 발음한다. 받침의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므로 탈락 현상 한 가지만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② 흙하고[흑하고(자음군단순화: 탈락)→흐카고(축약)]
- ③ 방뿔[방웁(음절의 끝소리규칙: 교체)→방뿔(ㄴ첨가)]
- ④ 술하다[술하다(음절의 끝소리규칙: 교체)→수타다(축약)]

02 ③ 현대문법-형태론: 단어의 갈래

③의 '돌보다'는 '돌(동사의 어간)+보다'의 구성으로서, 어간 뒤에 연결어미가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① 타(어간)+고(연결어미)+나다(동사) - 통사적 합성어
- ② 불(어간)+듬(명사) - 연결어미가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 ④ 높(어간)+푸르다(형용사) - 연결어미가 없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03 ④ 현대문법-형태론: 품사의 통용

④ ㉠과 ㉡의 '높이'는 모두 높은 정도를 의미하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 ① ㉠의 '백'은 수사
㉡의 '백'은 관형사
- ② ㉠의 '오늘'은 명사
㉡의 '오늘'은 부사
- ③ ㉠의 '밝다'는 형용사
㉡의 '밝는'은 동사

04 ③ 현대문법-형태론: 품사

③의 '다들'에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이 아니라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의 '들'은 두 개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②의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 ④의 '어서들'에서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 '그들에게'에서 '들'은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에 해당한다.

05 ④ 어문규정-한글맞춤법: 띄어쓰기

④ 그럴√법√하다는 → 그럴√법하다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법하다'는 보조형용사로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그럴 법하다(원칙) / 그럴법하다(허용)'이다.

[오답 풀이]

①

- '어려운√일√하는'의 경우, '어려운'이 관형어이므로 동사인 '일하다' 전체를 수식한다기보다는 명사 '일'만을 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일'과 '하다'를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그√사람이√떠난√지√사흘√만에√돌아왔다.

- '지'가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떠난√지'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 '만'이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경우 의존명사이므로 '사흘√만에'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 '돌아오다'는 합성동사이므로 한 단어이다.

③ 저√큰√집√한√채√살√때까지√열심히√돈을√벌었다.

- '큰집'이 '큰아버지 댁'을 의미한다면 합성어로서 붙여 쓰지만, '규모가 큰 집'을 의미하는 경우 뒤에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한√채'의 '한'은 그 수량이 하나임을 나타내는 관형사이고, '채'는 집을 세는 단위인 의존명사이므로 각각의 단어로 띄어 쓴다.

06 ② 어문규정-외래어 표기법

② 영어 발음 '오우'는 '오'로 간결하게 적는다. 따라서 윈도우(window)로 적는다. 그리고 'concept'의 앞에 'con-'의 영어 알파벳 'o'는 일반적으로 '고'로 발음하므로 '컨셉'이 아니라 '콘셉트(concept)'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①

- 액세서리 → 액세서리(accessory): 이 단어는 발음이 [æksesəri]이다. 이에 따라, '액세서리'로 써야 한다.
- 주스→주스(juice): 'juice'는 단모음 [-u-]로 소리 나므로 '주스'로 적는다. 구개음인 'ㅈ, ㅊ' 뒤에서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가 아닌,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발음되므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와 같이 적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③

- 로봇(robot):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로봇(robot), 로켓(rocket), 라켓(racket) 등처럼 적는다. 로보트(x)
- 애드립 → 애드리브(ad lib):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b], [d], [g])은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애드립'이 아니라 '애드리브'로 적는다.

④

- 심포지움 → 심포지엄(symposium): 이 단어는 [simˈpɔ:ziəm]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움'이 아니라 '-엄'으로 표기해야 한다.
- 플래시(flash): 이 단어의 발음은 [flæʃ]이고, 어말의 [ʃ]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플래쉬, 후레쉬'가 아니라 '플래시'로 적는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7 ③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③ 그리고 나서 → 그러고 나서

‘그리고’는 접속부사이므로 뒤에 보조용언이 연결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동사 ‘그러다’에 ‘-고 나서’가 연결된 말인데, ‘-고’는 연결 어미로 ‘나서’는 동사 ‘나다’의 활용형이다. 이때 ‘나다’는 본동사 다음에 쓰여 뜻을 더해 주는 보조동사이다. 이처럼 ‘-고 나서’는 동사와 연결되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낸다. ‘자고 나서’, ‘씻고 나서’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답 풀이]

① 누레진=누렇+어진 → ≯불규칙활용

‘누렇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누레’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지다’가 결합하면 ‘누레지다’가 된다.

② 만듭새=[만들(어간)+ㅁ(명사화 접사)]+새

어간의 끝음 ㄹ 뒤에 명사화 접미사 ‘ㅁ’이 결합하여 명사로 된 단어의 경우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따라서 ‘만들+ㅁ’의 원형을 밝혀 적은 ‘만듭’이 된다. 여기에 ‘됨됨이, 모양, 상태’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새’가 붙어서 ‘만듭새’가 된 것이다.

④ 얹(어간)+을는지(연결어미)

‘=는지/을는지’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러는지, =른지’ 등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08 ② 현대문법-통사론: 문장의 갈래

②는 ‘생각하는’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 하나만을 안은 겹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관형절과 서술절

• ‘해결할’에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관형절.
• 철수는(주어)+[용기가(주어) 부족하다(서술어)]의 구성으로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③ 관형절과 명사절

• ‘우승할’은 관형사형 어미 ‘-ㄹ’이 결합한 관형절.
• ‘후보자임’은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명사절.

④ 부사절과 관형절

• 부사 ‘없이’의 부사절
• ‘내리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한 관형절.

09 ④ 현대문법-통사론: 문장성분 및 조사

④ 첫 문장의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며, 문장성분은 앞에 성분과 동일하게 목적어이다.

둘째 문장의 ‘하고’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이때의 ‘누구하고’는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문장의 ‘동창회에서’는 서술어 ‘전달했다’와 호응하는 주어이며, 이때의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이다.

둘째 문장의 ‘동창회에서’는 관형절의 서술어 ‘있었던’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며, 이때의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② ‘물이 얼음이 되었다.’의 ‘얼음이’에서 ‘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보격 조사이며,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보어임을 나타낸다.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보격조사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으로’는 부사격보사이므로 ‘얼음으로’의 문장성분은 부사어이다.

③ 첫 문장의 ‘와’는 ‘동반(함께)’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인데, 이때의 ‘와’는 체언인 ‘엄마’에 붙어서 부사어로 기능하면서 서술어인 ‘의논했다’를 수식한다.

둘째 문장에서 ‘와’는 ‘엄마는 민하를 기다렸다.’와 ‘민주는 민하를 기다렸다.’의 두 문장을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접속조사이다. ‘엄마와 민주’를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로 쓰이게 할 뿐이며 특정한 격과는 관련이 없다.

[참고] ‘뵈다, 다르다, 싸우다, 만나다, 사랑하다, 결혼하다, 이혼하다, 의논하다’와 같은 대칭성(對稱性) 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와/-과’는 ‘비교’나 ‘공동’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홑문장이다. 접속조사 ‘와/과’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10 ① 현대문법-통사론: 서술어의 자릿수

<보기>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수정한 문장이어야만 적절한 선지로 간주할 수 있다.

①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게 지 않다. 문장의 전체 주어는 ‘일은’인데, 서술어 ‘줄겠다’는 이와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 하는 것이다’로 바꾸어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라는 발문의 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논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보기>의 내용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② ‘간주하다’는 ‘주어-목적어-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제 자릿수 서술어이다. ‘형사들은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다’는 목적어가 생략된 표현이므로 목적어를 보충하여 ‘형사들은 그를 (도피 중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③ ‘복종하다’는 ‘-에 복종하다’의 형태로,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고, ‘지배하다’는 ‘-을 지배하다’의 형태로,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릿수 서술어이다. 따라서 뒤 문장 ‘(인간은) 지배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는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목적어를 보충하여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④ ‘널다’는 ‘주어-목적어+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이다. ‘그는 손을 넣고’는 부사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따라서 부사어를 보충하여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11 ③ 고전문학-한시: 감상의 적절성

방랑시인 김삿갓에게 가난한 선비가 죽 한 그릇을 대접하며 미안해하자 “주인장, 면목 없다 말하지 마오 / 나는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도오.”라며 주인에게 대답하고 있다. 손님 접대로 내놓은 초라한 열건 죽 위에 하늘빛과 산 그림자가 비친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방랑하는 삶을 표현한 것이다. 즉 ‘하늘’과 ‘떠도는 구름’은 주인이 아니라 시적화자인 김 삿갓이 방랑 생활을 하는 자신의 삶을 비유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소반에 죽한 그릇’은 주인이 가난하지만, 죽이나마 시적화자인 ‘나’에게 대접하려는 것이므로, 주인의 따스한 인정과 가난한 농민의 삶을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알 수 있다.

② 3~4구에서 감사를 전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④ 자조나 한탄은 보이지 않는다. 가난에 시달리는 농민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난다. 또한 '물에 거꾸로 비친 청산이 좋다'고 하여 속세를 초탈한 인생관과 자연과 더불어 즐기려는 안빈낙도의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문11]출전: 김병연(김삿갓)의 한시

1) 갈래: 한시. 칠언절구

2) 형식: 칠언절구

3) 어조: 위로와 연민이 담긴 대화의 어조

4) 주제: 가난에 시달리는 농민에 대한 연민과 작가의 안빈낙도(安貧樂道)

12 ③ 비문학-사실적 독해: 관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매클루언은 '매체가~의사소통을 하는 데 활용되기는 하지만, 단순히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매개 도구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단순한 매개 수단'이라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매클루언은 언어적 기호인 '말과 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기호(웃과 집, 과학과 철학, 회화와 음악 등)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매클루언의 말에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 담겨 있고, 매체에 의해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까지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관점은 적절하다.

④ 매클루언은 간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되는 비언어적 기호도 매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활용된다면 '기차'도 매체라 할 수 있다.

13 ① 고전문학-향가: 종합적 감상

① 현존하는 작품으로는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 포함 25수이다. 『균여전(均如傳)』은 승려인 균여대사의 향가집으로, 「보현심원가」 11수가 실려 있다. 따라서 「보현심원가」를 제외하고, 「서동요」뿐만 아니라 현전 향가들은 모두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오답 풀이]

② 「서동요」는 4구체 향가인데, 일반적으로 4구체 향가를 민요에서 정착되었다고 보아 민요체 향가라고 일컫는다. 또한 서동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동요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③ '선화공주(善化公主)'는 음독, '님(主)'은 훈독, '은(隱)'은 음독을 한다.

한자	善	化	公	主	主	隱
훈	착하다	되다	귀인	님	님	숨다
음	선	화	공	주	주	은
향찰	음독	음독	음독	음독	훈독	음독
해석	선화공주님은(선화공주님은)					

④ 「서동요」는 「풍요」, 「헌화가」, 「도솔가」 등과 함께 형식상 4구체 향가에 속한다.

※향가 출전

1)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 - 14수

- 서동요(著童謠)
- 제망매가(祭亡妹歌)
- 안민가(安民歌)
-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풍요(風謠)
- 원가(怨歌)
-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
- 처용가(處容歌)
- 도솔가(兜率歌)
- 헌화가(獻花歌)
- 원왕생가(願往生歌)
- 우적가(遇賊歌)
- 혜성가(彗星歌)

2) 균여전에 실린 향가 - 「보현심원가」 11수

- 예경제불가(禮敬諸佛歌)
-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
- 수희공덕가(隨喜功德歌)
- 청불왕생가(請佛王生歌)
- 향순중생가(恒順衆生歌)
- 총결무진가(總結無盡歌)
-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 참회업장가(懺悔業障歌)
- 청전법륜가(請轉法輪歌)
- 상수불학가(常隨佛學歌)
- 보현회향가(普賢廻向歌)

※출전: 「서동요(著童謠)」

1. 해제: 이 노래는 백제 무왕이 마를 팔아 생활하던 어린 시절에 지어 서라벌의 아이들에게 퍼뜨린 노래라고 전해진다. 선화 공주의 비행을 발설하여 왕궁에서 쫓겨나게 함으로써 마침내 자기의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한 일종의 참요(讖謠)로, 4구체의 민요 형식에 의한 직설적인 표현이 특징이다.

2. 핵심 정리

1) 갈래: 4구체 향가

2) 성격: 참요(讖謠, 讖謠)적, 민요적, 동요적

3) 주제: 선화 공주의 은밀한 사랑, 선화공주에 대한 연모의 정, 선화 공주를 얻기 위한 계략

4) 의의: ①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

② 민요가 4구체 향가로 정착한 노래

③ 신라 최초의 향가

④ 향가 중 유일한 동요

5) 출전: 『삼국유사』

※[문14~15]출전: 황석영, 「삼포 가는 길」

1.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산업화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떠돌이 노동자, 술집 작부를 등장시켜 하층민의 애환과 인간적 유대감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2. 핵심 정리

1)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2) 배경

┌시간 - 1970년대의 겨울날

└공간 - 공사장에서 철도역까지 눈 덮인 길

3)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애환과 연대 의식

4) 표현상의 특징

• 간결한 문장으로 사건을 전개

• 간단한 대화로 내용을 압축하여 표현

•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 표현에 여운을 두고 있다.

• 주로 대화나 행동 묘사를 중심으로 한 보여주기(showing) 방식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3. 전체 줄거리

떠돌이 노동자인 영달은 공사판이 중단되자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쳐 나온다. 영달은 길에서 고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정 씨를 만나 동행하기로 하는데, 정 씨는 전과가 있는 노동자이다. 이후 그들은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스물두 살의 작부 백화를 만난다. 세 사람은 산골길을 걸어서 감천 읍내에 도착하고 백화는 영달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가자고 제의한다. 영달은 이에 응하지 않고, 두 남자는 백화를 보낸다. 영달과 정 씨는 삼포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던 중에 삼포에도 공사판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달은 일자리가 생겨 반가웠지만 정 씨는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는 안타까움으로 발걸음이 내키지 않는다.

14 ① 현대문학-현대소설: 인물의 심리

영달이는 고향에 빠진 백화를 업어주고, 옆에서 부축해 주기도 한다. 또한 정 씨의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라는 말에 영달이는 “그런 거 같아요.”라고 인정한다. 이것으로 보아 영달이는 백화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달이가 백화와 동행하지 않은 것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정 씨는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라고 하면서 영달이에게 백화와 함께 동행할 것을 권유했다. 따라서 정 씨 본인은 자신의 고향인 삼포에 정착하여 뜨내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정 씨와 영달이가 대합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백화가 뭔가 쑀곤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백화는 영달이가 자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심리를 보인다.
- ④ 백화는 영달이에게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라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② 현대문학-현대소설: 문학 기법

② 소설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말하기(telling) 방식과 보여주기(showing) 방식이 있다. 말하기(telling)는 분석적, 직접적, 해설적 제시라고도 하며,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주기(showing) 방식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대화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 글은 주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말하기(telling) 방식이 아니라 보여주기(showing) 방식이다.

[오답 풀이]

- ① 전체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인물의 대화 중심으로 전개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성격을 지녔다.
- ③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온 백화의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는 표현은 백화의 복잡한 심정을 역설적 표현한 것이다.
- ④ 이 글에 자주 나타나는 말줄임표에는 발화자의 감정이 여운으로 남아 있다.

16 ④ 비문학-한자성어: 빈칸 넣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남쪽의 굴을 북쪽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남(江南)의 굴을 강북(江北)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도 환경(環境)에 따라 기질(氣質)이 변한다는 ④의 ‘굴화위지(橘化爲枳)’가 적절하다.

- ① 국수주의(國粹主義: 國 나라 국/粹 순수할 수/主 주인(임금, 주장, 주대) 주/義 옳을(뜻, 의미) 의):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전통·정치·문화만을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태도나 경향.
- ② 위정척사(衛正斥邪: 衛 지킬 위/正 바를 정/斥 물리칠 척/邪 간사할 사): 구한말에, 주자학을 지키고 가톨릭을 물리치기 위하여 내세운 주장. 본디 정학(正學)과正道(正道)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異端)을 물리치자는 것으로, 외국과의 통상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 ③ 상분지도(嘗糞之徒: 嘗 맛볼 상/糞 똥 분/之 갈 지/徒 무리 도): 대변이라도 맛볼 듯이 부끄러움을 돌아보지 않고 몹시 아첨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④ 굴화위지(橘化爲枳: 橘 굴 굴/化 될 화/爲 할 위/枳 탕자 지) 강남(江南)의 굴을 강북(江北)에 심으면 탕자가 된다는 뜻으로, 사람도 환경(環境)에 따라 기질(氣質)이 변한다는 말.
- [유] 강남굴화위지(江南橘化爲枳), 남굴북지(南橘北枳)

17 ② 한문-한자 어휘: 같은 한자

‘자의성(恣意性)’이란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을 말한다. 이때의 ‘자(恣)’는 ‘마음대로, 제멋대로, 내키는 대로 하다, 방자하다’는 뜻의 한자어다. 이와 같은 한자는 ②의 ‘방자(放恣)’이다.

• 자의성(恣意性: 恣 마음대로(방자하다) 자/意 뜻 의/性 성품 성):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특성.

- ① 지자체(地自體: 地 땅(장소, 국토) 지/自 스스로 자/體 몸 체): ‘지방자치 단체’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 지방(地方: 地 땅 지/方 모(본뜨다) 방)
- ② 방자(放恣: 放 놀음(멋대로 하다, 어긋나다) 방/恣 마음대로(방자하다) 자):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짐.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노는 태도가 있음.
- ③ 자세히(仔細: 仔 자세할 자/細 가늘 세/--):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히. [유] 자세히(子細: 子 아들 자/細 가늘 세/--)
- ④ 자태(姿態: 姿 모양 자/態 모습 태): 어떤 모습이나 모양. 주로 여성의 고운 맴시나 태도에 대하여 이르며 식물, 건축물, 강, 산 따위를 사람에게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18 ④ 비문학-추론적 독해: 내용 파악

플라톤은 실재와 똑같이 그려진 회화는 원본의 복제물인 ‘시물라크르’를 실재하지 않는 것, 가상의 것으로 보았다. 또한 ‘회화는 그 현실을 다시 복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실재가 파생 실재로 전환되는 작업을 ‘시물라시옹’이라고 하고, 원본의 복제물을 ‘시물라크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물라시옹의 결과물이 시물라크르이다.
- ② 두 번째 문장에서, 시물라크르는 ‘파생 실재’라고도 불리고 ‘하이퍼리얼리티’를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시물라크르, 파생 실재, 하이퍼리얼리티는 같은 의미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1년 3월 6일 경찰공무원 1차

2021. 03.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마지막 문장을 보면,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춘 개체, 즉 또 다른 실재이자 원본이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 실재를 완벽하게 똑같이 그린 회화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19 ④ 비문학-독서의 방법(독법)

‘독법(讀法)’이란 글이나 책을 읽는 방법을 말한다.

(나)는 세상의 변화 속도에 대한 사회 현상을 분석한 글이다. 글에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사회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비판적 독해는 글쓴이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점과 공감할 수 없는 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글쓴이와 다른 생각이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따라서 ‘공감은 피해야 한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실적 독해는 글의 어휘를 이해하고 문장, 문단, 글의 구조를 이해하여 기본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읽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독해 과정이다.

② ‘주지’는 글의 중심이 되는 내용, 부연은 주지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덧붙여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가)의 첫 단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물을 돈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는 중심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제주도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단락에서는 예부터 물이 귀한 곳이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는 부연 단락이다.

③ (가)는 사실적 독해만으로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해 위주의 읽기로 충분할 수 있다.

※독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 1) 사실적 독해: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 2) 추론적 독해: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 3) 비판적 독해: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 4) 감상적 독해: 글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감상하며 읽는다.
- 5) 창의적 독해: 글에 대한 새로운 견해나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면서 창의적으로 읽는다.

20 ② 문학-문학사

<구운몽>은 김만중 어머니 윤 씨를 위해 지은 국문 소설로, 몽자류 소설의 효시가 되는 작품이다.

판소리계 소설이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토끼전>, <화용도>, <배비장전>, <웅고집전>, <장끼전>, <숙영낭자전> 등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조 부흥 운동은 1920년대 후반에 국민 문학파가 민족주의 문학 운동의 하나로 제시한 근대 시조 창작 운동으로서, 최남선, 이광수, 이은상, 이병기, 정인보 등이 창작과 이론 면에서 이에 기여하였다.

③ 이상의 <날개>는 내용의 난해함과 형식의 파격성으로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에서 사건은 논리적 전개에 의한다기보다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데, 이는 현대인의 분열된 자아 의식과 고독감을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기술하는 심리 소설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호질>, <양반전>은 모두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다.

• 「호질(虎叱)」은 호랑이를 통하여 도학자의 위선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으로, 『열하일기』에 실려 있다.

• 「양반전(兩班傳)」은 가난한 양반이 관아에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고을 원의 배석하에 천한 신분의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려고 하였으나 양반의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양하였다는 내용이다. 양반 계급의 허위와 부패를 폭로하였으며 실학사상을 고취하였다.